

광림교회 오시는 길 _ Information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 02.2056.5600 | 5700



-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4,5번 출구 - 도보 5분
- 압구정역 버스정류장**
간선 147, 148, 240, 463
지선 33, 4211
- 광림교회 버스정류장**
간선 143, 240, 342, 362, 440, 472
지선 3011, 4318, 4412, 4419
- 주차장 이용안내**
광림사회봉사관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와
YOUTUBE(광림교회 채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배모임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 4부 오후 2시 30분 (찬양예배)
2부 오전 9시 | 5부 오후 4시 30분 (젊은예배)
3부 오전 11시 | 저녁 오후 7시 30분

주일 외국어 예배

영 어 오후 2시 30분 웨슬러관 3층
중국어 오후 3시 웨슬러관 5층

수요 치유의 신학 | 금요 은혜의 밤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금요일 오후 8시

새벽기도회

1부 새벽 5시 벨엘성전
2부 새벽 6시 교육관 2층

광림남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45 031.693.7960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 수요 치유의 신학
2부 오전 9시 | 수요일 오후 7시 30분
3부 오전 11시 | 금요 은혜의 밤
4부 오후 2시 30분 | 금요일 오후 8시
저녁 오후 7시 30분 | 새벽기도회
1부 새벽 5시 | 2부 새벽 6시

광림서교회

인천시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96
032.721.5750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저녁 오후 7시 30분

광림북교회

경기도 의정부시 송현로 82번길 5
031.928.5970

수요 치유의 신학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 은혜의 밤
금요일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

발행인 김정석 | 기획·디자인 광림교회 문화홍보실 | 02.2056.5623

광림의 강단


*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때를 위하여라”
For such a time as this
(예 4:14)

2021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기흥학기
에수라·크웨미야·에수라





이메일로 신청하기
신청서(광림교회 채널)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신학대학원

원리 4 STEPS 리더과정
추조라이프 (Choose Life)
어던트라이프 (Abundant Life)
포레스트 캠퍼스

성서대학원

추진부 : 주일 1시 30분 / 광림사회봉사관 4층 권벤션 B를
이름다듬기 : 주일 1시 30분 ~ 3시 30분 / 광림교회 1층 강도희 교역부
함께하는 이공체입니다.
문의 : 02-2056-5631

성서대학원

추진부 4시 30분 / 대예배실
이름다듬기 : 주일 4시 30분 ~ 6시 30분 / 광림교회 1층 강도희 교역부
함께하는 이공체입니다.
문의 : 02-514-8871

신학대학원

추진부 : 주일 1시 30분 / 광림교회 1층 강도희 교역부
이름다듬기 : 주일 1시 30분 ~ 3시 30분 / 광림교회 1층 강도희 교역부
함께하는 이공체입니다.
문의 : 02-2015-1168

신학대학원

추진부 : 주일 2시 30분 / 광림교회 2층
이름다듬기 : 주일 2시 30분 ~ 4시 30분 / 광림교회 2층
함께하는 이공체입니다.
문의 : 02-2015-1168

신학대학원

추진부 : 주일 10시 30분 / 광림교회 1층 강도희 교역부
이름다듬기 : 주일 10시 30분 ~ 12시 30분 / 광림교회 1층 강도희 교역부
함께하는 이공체입니다.
문의 : 02-2056-5716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담임목사 김 정 석

“17.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8.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19.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떼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떼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 22.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8장 17~2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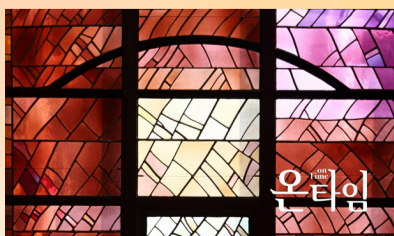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받는 존재로서 세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것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주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계명과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내가 공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20절을 보면 “...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던 것을 기억하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실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온라인 영상 콘텐츠 이용 안내



주일설교요약, 온타임 묵상 등 영성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에서 광림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시면 추가 영상을 손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렵고 놀랄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중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 생활에서 회복시킨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과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의 척박한 광야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축복이 마치 자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날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절망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 한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말한 본문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고, 다시금 노예의 삶을 70년 동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내가 어떤 존재의 사람인가를 잊어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들은 다시금 어둠과 절망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루체포레



광림사회봉사관 내 위치한 편안하고 따뜻한 카페입니다. 빛의 숲 서점이 있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문의 02-2015-1187